2009359612

- 머리말 / 역사의 주역은 누구인가

[1] 권력욕인가 질시인가
1. 김부식과 정지상, 끝내 피를 부른 시단의 쌍벽
2. 정몽주와 정도전, 권력이 갈라놓은 적과 동지
3. 수양대군과 김종서, 왕위찬탈을 둘러싼 격렬한 대결
4. 김종직과 유자광, 사화의 불씨를 댕긴 **20** 년 숙적
5. 정인홍과 이귀, 당파 갈등의 피해자와 가해자
6. 이순신과 원균, 영원한 명장과 졸장의 차이

[2]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으니
1. 허균과 기자헌, 선후배를 갈라놓은 처절한 당파싸움
2. 허목과 송시열, 예론으로 맞부딪친 당쟁의 주도자
3. 정약용과 서용보, 개혁주의자와 출세주의자의 갈등
4. 대원군과 민비, 천륜을 벗어난 철저한 앙숙
5. 김옥균과 민영소, 끝내 피를 부른 수구파와 개화파의 세력다툼
6. 송병준과 이용구, 친일매국에 철저했던 두 경쟁자

[3] 내 뜻이 네 뜻이라
1. 김춘추와 김유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호국의 이신일체
2. 원효와 의상, 득도의 길을 추구한 구도의 동반자
3. 김인후와 유희춘,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평생지기
4. 이이와 이지함, 대신과 야인의 차이를 초월한 비범한 만남
5. 유성룡과 김성일, 전란 속에서도 이어진 향기로운 우정
6. 김우옹과 정구, 사상의 조화를 이룬 동문수학의 벗
7. 박지원과 홍대용, 새 시대를 열망한 문사와 과학자
8. 박제가·이덕무·이서구·유득공, 조선 후기 사상계를 빛낸 한문학 신파 **4** 대가
9. 나철과 오혁, 종교를 통한 민족애와 동지애

[4] 시대를 맞든 맞수
1. 성삼문과 신숙주, 생사의 길을 달리한 친구
2. 이황과 조식, 가깝고도 멀었던 도학의 쌍벽
3. 최명길과 김상헌, 명분과 실리로 맞선 서인의 두 거두
4. 민영환과 송병선, 순국의 양면성, 개화론자와 척사위정론자
5. 문일평과 현상윤, 식민지시대 정신사의 두 기둥
6. 김구와 여운형, 끝내 화합하지 못한 동지 아닌 동지

[5] 세상 굴레를 벗으려오
1. 이달과 강위, 술과 시에 취해 보낸 세월
2. 신사임당과 황진이, 남존여비 사회의 두 희생양

3. 서양갑과 칠서,<홍길동전>의 모델인 일곱 서자의 꿈과 좌절
4. 허준과 그 반대자들, 문신들의 핍박을 이겨낸 의성

- 찾아보기